

욕망에 허덕이는 마음 쉬어라

사 원주소임을 맡았다. 그 후에는 은사 스님께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맡게 되자 태응 스님은 조계사 주지를 맡아 은사 스님을 보필했다.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지 여쭙었다.

“통도사 주지로 갔는데, 법당에 삼사백 명이 앉으니 꼭 차서 큰 설법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생애 부처님에 태어나 이 불사를 이루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어찌해 설법전 불사가 이루어지네요. 개원식을 하고 나서 너무 좋아 혼자서 밤이 늦도록 도량을 돌았어요. 그리고 불교TV 방송국을 개국하고 나서 부처님 법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집집마다 들어간다는 것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스님은 십삼사 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 한국전통사찰인 ‘서광사’를 창건해 교민사회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숲이 우거진 6만여 평의 대지 위에 지하 100평 지상 50평의 대웅전은 미주 지역 최고의 사찰로 손꼽힌다. 스님은 ‘아직 해외포교는 결음마 단계이며, 종단을 비롯해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외국행자들을 유치해서 그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해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서양인들도 명상이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아요. 세계의 정치인들이 인과법을 깨닫는다면 세계평화는 저절로 이뤄질 것입니다.”

스님은 ‘미국이 너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해 약소국가를 무시한 인과음으로 미국인들은 테러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어 힘부로 세계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오바마를 당선시킨 미국이 대단한 국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어떤 전쟁이 나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9·11테러로 인해 미국이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됐다. ‘한 번 전쟁을 일으키면 비싼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것이 인과음보인데, 그 인과는 누가 감쪽하지 알아도 진리가 감쪽하는 것’이라 했다. ‘부처님 당시 석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그것은 인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면서 경전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강대한 코살라국은 호시탐탐 가비라국을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코살라국 군대가 가비라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부처님은 피야별이 내리쬐이는 한길가의 고목나무 아래 앉아계셨다. 군사를 이끌고 그 앞을 지나가던 코살라의 왕 ‘비루다카’는 말에서 내려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여쭙었다.

“부처님! 일이 우거진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일 하나 달려있지 않은 나무 아래 앉아 계시니까?”

“진즉이 없는 것은 그늘이 없는 나무와 같은 법이요.”

비루다카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군대를 돌려 코살라국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비루다카왕은 또 다시 가비라국을 향해 진군해 왔고, 이번에도 부처님은 그늘이 없는 나무 아래 앉아계셨다. 부처님의 모습을 본 비루다카왕은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세 번째로 비루다카왕이 진군해 왔을 때는 부처님의 모

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세상에 지은 인과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비루다카왕은 거침없이 가비라국을 공격했다. 살생을 금하고 있던 석가족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물살당하고 말았다.

“인과법이 이렇게 무서운데 욕망을 위해서 고삐 풀어진 망아지처럼 날뛰어서 되겠어요? 인과법이 바로 진리인 것이라.”

“인과법이 진리’라는 스님의 말씀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이다. 스님의 안온한 미소와 낮은 목소리로 자분자분 들려주시는 법문은 감로수와 같았다. 우리 중생들에게도 스님의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주시기를 간청했다. 스님은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하고 웃었다.

“불교는 ‘끝없이 욕망하는 그 허덕이는 마음을 쉬어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허덕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높게 올라가려고 허덕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고 채워진 것은 언젠가는 비워지는 것이 세상사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또 고운 놋, 미운 놋이 다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사를 두고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게 됩니다.”

곧 세납 칠십을 맞이하게 되는데도 스님은 매일 새벽 2시 30분이면 일어나 새벽예불을 올린다. 사시예불, 저녁예불까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공양도 대중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절제기간 중에는 대중과 함께 정진한다. 24시간을 오롯이 깨어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대중으로부터 존경과 흠모를 받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여쭙더니 “다른 소원은 없고 다음 생애도 회색 옷 입은 ‘율브러너(Yul Brynner)’가 될 계획”이라 했다. 세계생생 인육의 회색 옷을 입고 수행자 길을 걸겠다는 스님의 원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3. 용봉 이재복 선생

태고종 선지식 가운데는 많은 학자들이 계셨으나, 중년종 선지식으로는 대전보문학교 이재복 교장선생님과 광주 정광고등학교 최태복 교장선생님이 존경을 받았다.

이재복 교장선생님은 선비가 기 전에 문인풍이 몸에 배었고, 최태복 교장선생님은 철저한 철학자이면서도 종교적 구도자였다. 두 분 다 1960년대부터 1980년 때까지 수 10차례 만나 불교강의도 많이 들었다.

용봉 이재복(1918~1991) 선생님은 15세에 갑사로 출가 이후 마곡사에서 5년간의 수선안거 이후 대승사·공통사·봉선사·마곡사 강원에서 수학하고 불교중앙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한 후 해화전문학교 불교과를 수석졸업했다. 이후 마곡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등 학승으로서의 길

으나,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조선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었지. 그래서 15세에 공주 갑사 이은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마곡사, 대승사, 대원암, 봉선사, 금음사 등으로 돌아다니며 불연(佛緣)을 맺었다. 1935년 일본시찰단에 참여하였다가 일본불교가 한국불교보다는 앞섰다는 것을 느끼고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죽음을 체험한 듯 한참 있다가 눈을 떴다. 그때 교감선생이 옆에 있다가 말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부터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마곡사 등 여러 사찰을 동참시켜 보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졸업 30여년을 외길로 교육사업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에 불교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으며, 틀리는 데로 문인활동을 통해서 불교교의 길을 넓혀갔다. 요즘 들으니 그동안 포교활동시 법문 테이프가 3000여 점, 문학작품이 1만여 점이 넘는다고 하니 기이 그 열정을 되새겨 볼만하다.

2009년 5월 출간된 <용봉 스님 추모 전집>에는 선생님의 방대한 설법과 강의, 문학작품, 대장경 강화 등이 수록돼 있다. 전집은 <제1권 '빈 배엔 달빛만

교육불사 앞장선 선지식... 불교 생활화·현대화 적극 포교

을 걸으면서 오세창, 정인보, 이광수, 고희동, 서정주, 조지훈, 김달진 등 당시 문학적 인사들과 교류했다. 해방 직후 보문중학원(현 보문학원) 설립을 발의해 마곡사와 충청지역 사찰의 출자를 이끌어냈으며, 공주사범학교와 보문·종교고 등지에서 오랜 기간 강단에 섰다.

교육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이재복 선생님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위한 포교활동에도 적극적이였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舊 조계종 총무원 원장, 대전불교연수원 설립, 전국불교종업연화회 불교교본편찬위원, 태고종 종승위원장 및 포교원장, 중앙종회의장, 동방불교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며 태고종 중무행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나는 1918년 충남 공주 계룡에서 태어났네. 생후 5개월 만에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통학교와 중등교육을 마쳤

‘불교성구단’을 조직해 전국을 순회공연도 하고...”

이 말씀은 필자가 대학 1학년 때 현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스님과 함께 하계순회강연을 갔다가 대전보문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들은 이야기이다.

“대문 큰스님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습니까?”

“1939년 내 나이 22세 때지. 대문 스님 덕분에 박한영 스님, 김동화 박사님으로부터 불교공부를 수학할 수 있었지. 24세 때부터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 서재에 머물며 정인보, 이광수 등 문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고. 그 때 나는 능금나무에 대한 시를 이렇게 지어어.”

죽음이란 또한 능금나무가지에서/ 한 알의 능금이 눈 감고 떨 어저듯 고요한 거리/ 그 거리를 두고 인생은 / 잠잠처럼 취해 있느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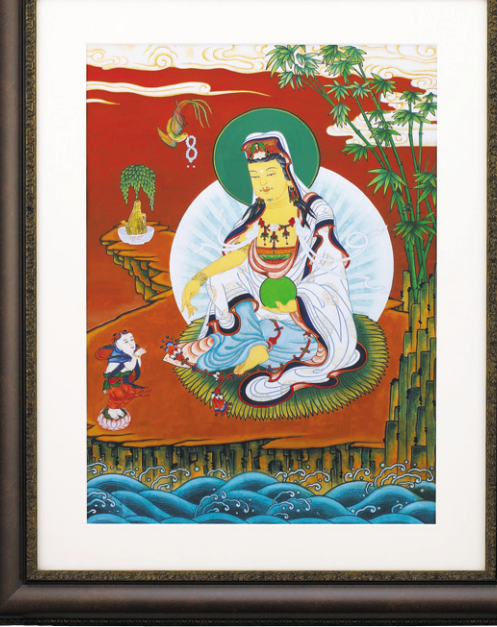
가득하고(불교강화 녹취집) △제2권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대장경강해자료집1) △제3권 '미움도 사랑도 벗으라네'(대장경 강해 자료집2) △제4-6권(대장경 강해 자료집) △제7권 '침묵 속의 끝없는 길어리'(문학집) △제8권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추모, 유품집)의 전 8권으로 구성됐다.

사람들은 사찰의외하고 출가인산한 사람만이 출가한 스님으로 아는데, 이렇게 유방대처하고 가무음악을 하는 선생님을 속에도 진짜 스님의 기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재복 선생님은 “일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도의(道義)를 재건하며 퇴폐한 사회를 정화하고, 변질된 청소년을 교화하는 데는 불교지도자 여러분이 각자 분수 따라 종교적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불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음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논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험수 있다.」(관세음보살명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풍류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관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가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불합가)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 문물달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많고 불경기도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마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강습학원, PC방, 당구장, 사할 인쇄소, 문방구, 가운, 복리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문방사부서,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병안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범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환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릴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풍류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